

『精選 日語通編』에 보이는 어미 ‘-아/어(X)’의 교체에 대하여

김세환*

1. 서론
2. 자료의 소개와 방언의 반영 여부
 - 2.1. 자료의 소개
 - 2.2. 방언의 반영 여부
3. 당시의 논의와 어미 ‘-아/어(X)’ 교체
 - 3.1. 당시의 논의
 - 3.2. 어미 ‘-아/어(X)’의 교체
4. 결론

【요 약】

이 글은 20세기 초 회화서인 현공림(1911)의 ‘정선 일어통편’에 나타난 음운현상 중 어미 ‘-아/어(x)’의 교체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에 앞서 이 책의 회화자료가 당시의 중부방언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비원순모음화와 ‘어>으’ 상승현상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아/어(x)’의 교체와 관련된 당시의 논의와 비교하면서, 어간 모음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아/어(x)’의 교체 양상을 서술하였다. 어간말음절 모음이 ‘아’이면서 어간말 자음이 ‘ㄹ’, ‘ㄷ’일 경우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에는 ‘-어(x)’가 많이 선택되었다. 어간말음절 모음이 ‘오일’ 경우에는 예외없이 ‘-아’가 결합하였으며 어간말 모음이 ‘우’인 경우는 ‘-어’를 취하였다. ‘ㅂ’ 불규칙 활용 어간의 경우 ‘X우-’의 ‘X’가 양성모음일 때는 ‘-아(x)’가, ‘X’가 음성모음일 때는 ‘-어(x)’가 선택되었다. ‘르’ 불규칙 활용 어간의 경우 ‘X르르’로 어간이 재구조화되었는데 ‘X’가 양성모음일 때는 ‘-어(x)’가 결합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ㅎ-(爲)’의 경우 ‘-야’가 결합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는데 ‘-여’가 결합되어 ‘ㅎ여’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 형태론적으로 범주화할 수가 있었다. ‘ㅎ여’가 나타나는 경우는 ① 명령형 어미 ‘-여라’ 형이 결합될 경우, ② ‘의무’의 뜻을 지닌 연결 어미 ‘-여야’ 형이 결합될 경우, ③ 종결어미 ‘-여#’가 결합될 경우 등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당시 실제 자연 발화에서는 ‘해(히)(X)’가 더 자연스럽게 쓰였을 것으로 보았다.

1. 서론

이 글은 玄公廉(1911)의 ‘精選 日語通編’(이하 ‘이 책’이라 함)에 쓰인 용언의 활용상에 나타난 어미 ‘-아/어(x)’ 교체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음과 관련된 음운현상에는 동화주가 모음일 수도 있고, 피동화주가 모음일 수도 있다. 피동화주가 모음인 음운현상으로는, 어미 ‘-아/어(x)’ 교체, 전설모음화, 원순모음화, 음라우트 등이 있다. 여기서는 ‘-아/어(x)’ 교체에 대해서 당시의 논의와 관련하여 이 책이 보여주는 현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당시의 논의는 주로 주시경(1906, 1910), 최현배(1929), 이완웅(1929) 등에 기술된 ‘-아/어(x)’와 관련된 것이다. 이 책은 20세기 초 회화자료인데 이에 대한 다양한 공시적 연구는 통시적 연구를 보완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2. 자료의 소개와 방언의 반영 여부

2.1. 자료의 소개

이 책은 玄公廉이 1911년에 간행한 일어학습서로서 전권을 7편으로 나누고, 문법지식을 적절히 삽입하여 회화습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책이다. 품사는 8품사(명사, 대명사, 후치사, 형용사, 부사, 감동사, 동사, 조동사)를 설정하였는데 일본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일본문법을 따르고 있다. 제1편은 음운, 제2편은 숫자와 척도, 도량, 계절 등에 대한 소개이며, 제3편부터 제목에 ‘회화’가 등장하므로, 제3편부터(30p) 마지막 7편까지의 대화와 문장을 본고의 대상자료로 한다.

玄公廉은 ‘유년필독’(1907)을 지은 白堂 玄采의 아들이다. 盧秀子(1969: 75)에 따르면 현채는 구한말 철종 7년(1856년), 父 譯參奉 濟萬의 아들로 서울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는 21세에 결혼하여 1876년 아들 玄公廉을 얻었다. 현공렴은 그의 나이 22세인 1897년에 일본유학을 가기도 했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 현공렴은 漢語 역관 출신인 현채의 아들로써, 태어난 지역은 ‘서울’일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중부방언을 구사하는 화자였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현공렴이 지은 ‘정선 일어통편’에 중부방언적인 요소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방언의 반영 여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책은 20세기 초 회화서 중 하나이다. 20세기 초 회화서에 표기된 언어는 국어이다. ‘국어’라 함은 이병근(2003: 2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동어나 방언을 배제한, 통일된 규범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따라서 회화서에 나타난

국어 역시, 이러한 성격의 것일텐데, 실제로 방언을 최대한 배제한 중앙어(중부방언)를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상 자료가 20세기 초의 중부방언을 반영한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통시적으로 기저형이 재구조화된 형태를 찾고자 하는데, 이 시기 중부방언에서 일어난 통시적 변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순음 아래 ‘오’의 비원순모음화와 ‘어>으’ 상승 현상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현상을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비원순모음화를 반영한 자료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오>어

의론버다증거(128)¹⁾

무명버담은더웁기도호고(158)

현금으로츠져니셔맛김버다편리호시오(67)

비원순모음화는 일종의 이화작용으로서 원순모음화에 반대된다. 비원순모음화는 중부방언의 특징 중 하나이다. 순음 아래에서의 ‘오>어’는 현대 중부방언만큼 확대되지는 못하였으나, 18세기 후엽부터 시작되어 19세기 후기에는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버다’의 변화는 중부 방언적인 성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어>으’ 상승 현상을 보여주는 예이다.

2) 어>으

ㄱ. 더럽-(汚)

드럽타지아니홀쫓호것이도아(53)

이것은수 호야드럽지아니홀수결(53)

턴장이드러우니조회를발너주시오(205)

1) ‘(숫자)’는 이 책의 페이지를 나타낸다.

- 흰벽은다그을어셔드럽게되얏고(214)
- ㄴ. 적-(少)
 - 오륙인이즈으근문을다도와나먼저호고셔로세밀고잇슨즉(183)
 - 그러노소가즈거셔일반사람의식용이되지못합니다(234)
 - 즈으근차관을가지고노오는쥬덤쥬인을도르보면서(296)
- ㄷ. 기타
 - 어른(長)으-른을극진히디접홈이올혼일이올시다(150)
 - 얼-(凍) 혹을-기도호고혹더위가들기도호오(167)
 - 떨-(懼) 가인의손을잡고쓰으는소리로(184)
 - 떨-(澁) 조금물을식히지아니호면쓸-습니다(197)
 - 형집(巾)이홍-겁을춤々히씩거접어주름잡으다고(57)
 - 언제 아젓시은-계드러와계섯셔오(246)
 - cf. 덜(威, 부사) 그쟈가오히려혼이들-느서(236)

(2)는 이 책에서 ‘어>으’ 상승 현상을 보이는 어간이 쓰인 예문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은 체언과 용언에 관계없이 일음절이 장음일 경우 ‘어>으’ 상승을 보인다. 19세기 후기의 중부 방언에서 장모음의 ‘으’가 ‘어’와 합류한 것을 볼 때 이들은 중부 방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²⁾ 이들은 모두 일음절이 장음이다. 그런데 일음절이 단음일 경우에도 ‘어>으’ 변화가 발견된다.

- (2)ㄷ. (녕->)녕->능-
 - 아례로느어셔우호로노오는것이(49)
 - 이러혼문스즈는꼭썩늪니다(68)
 - 물이쏟어나오니차를느올닛가(197)
 - 차쌍은의복등물을느어두는방이오(204)
 - 화약고에격지로느은폭발약은(238)
 - 스로민든것을느어두고(238)

2) 이병근(1970: 303)에 의하면 19세기 후기 중부방언 자료로 다루어질 ‘過化存神(1880)’ 및 ‘寵君靈蹟誌(조군령적지)(1881)’ 등에서 ‘쓰리지’와 ‘으드리나’ 등이 나타난다고 한다.

- 탄-자를느어두엇고폭발약도느어두엇든것이오(241)
 평-가표준들을써늘니다(267)
 이빅의중간을쓴어제첫스니흑편에서우편으로느시오(274)
 신문지사법 7운데에느엇스면엇더냐고흐는말도잇섯다(285)
 기부품산지느어셔(288)
 cf. 돈이외의스물을써서너은쇼추심표가못됩니다(69)
 혼별을너어다고(164)
 언덕가에순소나무그늘에숨어서(291)

(2ㄷ)은 ‘녕-’의 경우를 보인 것인데, 이것은 중세 시기에도 상성을 지니지 않았고, 통시적인 음절 축약도 없어, 短音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단음의 ‘어’가 ‘으’로 상승한 예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기에 ‘어>으’ 상승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며, 이것은 중부 방언의 큰 특징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2cf)의 ‘너은, 너어[入]’를 보면 반드시 ‘어>으’ 상승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음 어미 결합시 어간이 ‘녕-’이 선택되는 경향이 확인된다.³⁾ 이상으로 비원순모음화와 ‘어>으’ 상승 현상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대부분 중부 방언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눈에 띈다.

(3)ㄱ. -다고

- 이흥-겹을춤 々히씩거첩어주름잡으 다고(57)
 이단것이너무적으니좁더다고(91)
 다리미로페셔다고(160)

3) ‘녕->녕-’이 확인된다면, 그것이 ‘어>으’ 상승이 아닌,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즉, ‘녕+-어라→너:라’ 활용형의 어간을 재분석하여 ‘녕-:+어라→너:라’로 본 것이다. 이후 새롭게 분석된 어간 ‘녕-:’이 모음어미와 결합하게 되면 ‘느어’가 나오게 된다. 이것은 (2ㄷ cf)의 ‘순[立]’을 통해서도 가능성이 확인된다. 곽충구(1994:558)에서는 ‘녕->녕-:’의 변화를, 모음 어미 통합시 발생하는 음장이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다.

- ㄴ. 꿩>꿩: 꿩과오리를잡아왔소(219)
- ㄷ. 힘>심: 심도라가지못하는일뿐입니다(248)
- ㄹ. 가쁜히돌스궤기를주서슬그머니언덕가에슨소나무그늘에숨어
서연못우회로향하야평호고던젧소(291)

(3ㄱ)의 ‘-다고’는 보충법적 교체를 보이는 ‘달다’의 활용형인데, ‘충북, 경기’ 지역에서 나타나며, (3ㄴ) ‘꿩’의 경우는 통시적인 ‘위>오’ 축약에 의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⁴⁾ (3ㄷ) ‘심’은 ‘ㅎ’ 구개음화의 자료로서 역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3ㄹ) ‘돌스궤기’와 관련하여서는 황해도 지역의 방언에 나타난다. (3ㄷ)의 ‘주서[拾]는 ‘강원, 전북, 경북, 충북, 충남, 함북’ 등에서 나타난다.⁵⁾ 이상의 방언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책에서 한글로 표기된 자료는 대체로 그 당시의 중부 방언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자료의 소개와 자료가 나타내고 있는 방언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중부 방언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 자료의 음운현상 중에서 ‘-아/어(x)’ 교체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자료의 검토에 앞서, ‘-아/어(x)’ 교체와 관련하여 당대의 학자들이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알아본 후, 이 책이 보여주는 자료를 당대의 기술과 비교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4) 이 방언형들은 한국방언검색프로그램(국립국어원)을 이용하여 분포를 조사하였다. 20세기 초기의 자료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포 양상을 알아보는 데 참고로 활용하였다.

5) 오종갑(1997: 4)에 따르면 현대국어의 방언에서 ‘쫘.’의 어간말음은 ‘ㅅ’으로 재구조화되기도 하고 ‘ㅎ’로 재구조화되기도 하며, ‘ㅂ’으로 재구조화되기도 하는데, 이 중에서 어간말음이 ‘ㅅ’ 또는 ‘ㅎ’로 재구조화되는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쫘.’를 표준어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세기 초 ‘중부방언’을 반영하는 이 책에서도 ‘쫘.’가 사용되고 있다.

3. 당시의 논의와 어미 ‘-아/어(X)’ 교체

3.1. 당시의 논의

먼저 부사형 어미 ‘-아/어(x)’에 대한 논의로는 주시경(1906, 1910), 최현배(1929), 이완응(1929) 등이 있는데, 그 대강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 (4) ㄱ. 주시경(1906: 36): 우리말에 어도와 아도는 다 같은 뜻인데
어도는 ㅏㅓㅣ 음 잇는 ㅈ 알에 쓰이고 아도는 ㅏㅓ 음 잇
는 ㅈ 알에 쓰이느니라
ㄴ. 주시경(1910: 110): 아는 우에 웃듬소리가 ㅏ나ㅓ나ㅓ나ㅓ가
되는 알에 쓰이고 어는 ㅣ나ㅓ나ㅓ나ㅓ가 되는 알에 쓰이는
것이라 (띄어쓰기는 필자)

(4)는 주시경의 진술인데, ‘-아/어’의 교체에 대한 진술이 (4ㄱ)과 (4ㄴ)에서 별 차이가 없다. ‘-아’는 ‘아 오’에 결합되는 것은 차이가 없으나, ‘-어’는 주시경(1906)의 진술과 주시경(1910)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데, (4ㄴ)에서 ‘-어’가 어간말 모음이 ‘으’일 때에도 결합된다고 본 것이 추가되었다. 한편 이완응(1929)의 진술은 좀더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 (5) 이완응(1929: 88-90): ‘-아/어’를 活用字라 칭함(87p)
아: 單音動詞의語根의末字가「ㅏ·ㅓ」의中聲인時
가앗소(갓소), 사앗소(삿소), 보앗소, 오앗소(왓소)
어: 單音動詞의語根의末字가「ㅓ·ㅓ·ㅓ」의中聲인時와複音動詞
의全部⁶⁾ (但複音動詞라도語根의末字의中聲이「ㅏ·ㅓ」면「아」

6) 單音動詞는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를 말하고, 複音動詞는 어간이 받침을 가지는 동사를 말한다(송철의2006: 1526)

를用하야도無妨함)

두엇소, 쓰엇소(췌소), 서엇소(췌소), 켜엇소(켓소), 먹엇소, 신엇소, 울엇소, 감엇소(감앗소), 잡엇소(잡앗소), 뽑엇소(뽑앗소)

여: 單音動詞의語根의末字가「ㄹ」의中聲인時(한다의下에는「어」를用하야도無妨함)

되엇소, 기다리엇소(기다렸소), 가르치엇소(가르췌소), 뵈엇소

◎ 動詞의語根下에尊敬助用詞「시」가附할時에는其動詞의語根의如何를不問하고「시」를語根으로看做하야「어」를附하나니라
가시엇소(가췌소), 오시엇소(오췌소), 쓰시엇소(쓰췌소), 두시엇소(두췌소)

야: 單音動詞「한다」에만附하나니라
하얏소

(5)를 보면 이완응(1929)가 기왕의 진술보다 세밀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ㄱ). 어간말 모음에 관계없이 폐음절로 끝날 때는 ‘-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간모음이 ‘아 오’ 일 경우에는 ‘-아’를 써도 무방하다.

나. ‘-여’는 어간모음 ‘이’에 결합한다.

ㄷ. ‘-하’에는 ‘-야’가 일반적인데, ‘-여’를 써도 무방하다.

ㄹ. ‘-야’는 ‘-하’에만 결합한다.

(6ㄱ)은 이미 이 시기에 중부방언에서는 폐음절로 끝날 때 어간 모음에 관계없이 ‘-어’의 선택이 일반적이었음을 알려 주는 진술이다. 왜냐하면, (5)에서 ‘複音動詞의 全部’(폐음절 어간)는 ‘-어’가 결합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6ㄷ)은 ‘-야’가 어간 ‘-하’에만 결합함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최현배(1929)의 진술을 보면 아래와 같다.

- (7)ㄱ. 최현배(1929: 81): 움직씨(動詞)나 언똥씨(形容詞)의 어찌씨꼴(副詞形)의 씨끝(語尾)을 보건대, 그 홀소리가 씨줄기(語幹)의 끝의 홀소리를 딸아서 다르나니, 이를터면:

어찌씨꼴		홀소리고름		어찌씨꼴		홀소리고름	
막	막아	아-아	부	부어	우-어		
먹	먹어	어-어	그	그어	으-어		
보	보아	오-아	있	있어	이-어	따위.	

이 두 가지의 보기를 가지고 보건대, 우리조선말에는 대강 담과 같은 홀소리고름이 있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나니라. (...) 이로써 보건대, 우리말에서는 ㅏ ㅑ가 서로 가까운 소리 이오, ㅣ ㅡ ㅓ ㅕ가 서로 가까운 소리임을 알지니라.

- ㄴ. 최현배(1929: 82): ㅏ 다암에는 ㅑ가 따르는 것이 홀소리고름의 原則인데, 먼저 ㅑ에 특히 ㅓ받침이 있을 적에는, 그 다암에 ㅑ가 따르는 일이 특별히 많으니(갓어, 맞어, 앓어, 낮어.....), 이도 또한 홀소리가 닿소리를 닮은 것이라 할 수 있나니라.

(7ㄱ)의 진술은 일반적인 진술로서 어간모음이 ‘아 오’일 때만, ‘-아’가 결합함을 말한 것이다. (7ㄴ)은 좀더 정밀한 관찰로서 어간모음이 ‘아’일 때, 어간말자음이 ‘ㅓ’이면 ‘-어’가 결합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精選 日語通編’에서도 그 경향이 확인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3.2. 어미 ‘-아/어(X)’의 교체

어간의 모음에 따른 ‘-아/어(X)’의 교체는 어간의 모음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어간모음이 ‘아’인 경우를 먼저 보기로 한다.

■ 어간말 모음이 ‘아’인 경우

- (8) 어간이 개음절일 경우
식벽녁케이러느야(26)
느아가지아니하야셔는헛노릇이오(83)
큰화지가나셔(117)
- (9) 어간이 폐음절로서 ‘ㅈ’로 끝나는 경우
ㄱ. ‘-어’가 선택되는 예
그러느늘차저쥬시니(55)
은형에서차저닉셔(66)
현금으로츠저닉셔맛김버다편리ㅎ지오(67)
은형에서차저닉게ㅎ는(71)
친지를차젓디니(97)
닉시계가어티잇는지차저보소(208)
려관ㅅ지츠저가셔(258)
우리도피차도흔데를차저셔(223)
- ㄴ. ‘-아’가 선택되는 예
전별곁하츠즈갓습니다(82)
그녀즈가츠즈셔간사름에게이야기ㅎ기를(82)
숨박꼭질은숨어잇는스름을츠즈내는것이오(106)

(8)은 어간이 개음절로 끝나는 것인데, 예외없이 ‘-아’가 결합한다. (9)는 어간이 폐음절의 ‘ㅈ’으로 끝나는 경우로서 ‘ㅈ’으로 끝나는 경우는 ‘찾(춧)-’만 있었다. 어간이 ‘ㅈ’으로 끝날 때는 ‘-아’와 ‘-어’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데 (9-ㄱ)에서처럼 ‘-어’가 결합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최현배(1929: 82)에서 고찰한 “나에 특히 ㅈ받침이 있을 적에는, 그 다암에 ㄱ가 따르는 일이 특별히 많으니(갓어, 맞어, 앉어, 낮어……)”의 기록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 (10) 어간이 폐음절로 끝나는 경우
ㄱ. 어간말 자음이 ‘ㄱ’인 경우
아렸습니다(54)
으러드러너?(60)

- 쉽게즈랑홀수업는줄알엇다^ㅎ데(95)
 연을쫓^ㅏㅎ게세여봐라아렸니?(266)
 네알어습니다(213)
 주름이업서지^ㅏ아니^ㅎ니^ㅅ빠러너홀^ㅏ적에심안썼다(65)
 속적숨을빨니^ㅅ빨어셔주시옵소(159)
 줍이먹기쉬우니^ㅎ번^ㅅ빠러셔잘말는것을보고셔(162)
 옷을곳갈어입지아니^ㅎ면몸이가렵고(161)
 튼^ㅏㅎ실로다시달어주시오(164)
 와스와던등을달엇다^ㅎ힝디다(236)
 튼^ㅏㅎ실로다시달어주시오(164)
 아침은밤에차를말어먹는편이간편^ㅎ야(189)
 빅^ㅏ사람은다살어^ㅅ낫소(220)
 ㄱ' 전반으로^ㅎ랏소(64)
 리익이잇는것을아^ㅅ랏습니다(46)
 이럿치는안을줄알앗더니(80)
 먹이뭇어글시가번젓스니^ㅎ더^ㅅ콜아라(101)
 먹을진^ㅎ게^ㅅ콜아라(101)
 진셔^ㅅ켓헤언문을돌아주시오(104)
 잡지를뺏다가그것을쫓^ㅏ므^ㅏ라셔(107)
 ㄴ. 어간말 자음이 ‘ㄴ, ㄷ’인 경우
 시월썸의셔늘^ㅎ과^ㅅ터셔(281)
 교환셔를바^ㅅ더가지고(174)
 얼굴에춤을빚터^ㅅ출^ㅏ결(292)
 대접을^ㅅ밧엇스니(191)
 물건을바^ㅅ더드러셔이것을조합원에^ㅅ게^ㅅ꼭는(126)
 드러간죽할미가잇셔^ㅅ밧게셔사^ㅅ릿문을^ㅅ다^ㅅ더^ㅅ주^ㅅ더^ㅅ라(127)
 ㄴ' 이^ㅅ테^ㅅ뱍을^ㅅ본^ㅅ밧아^ㅅ쓰^ㅅ시면(102)
 답^ㅅ장^ㅅ밧^ㅅ하^ㅅ오^ㅅ너^ㅅ라(103)
 ㄷ. 어간말 자음이 ‘ㄱ’인 경우
 광경을샤^ㅅ진에^ㅅ박^ㅅ어셔(98)
 옷들을그^ㅅ디로^ㅅ반^ㅅ다^ㅅ지^ㅅ안에^ㅅ쳐^ㅅ박^ㅅ어셔^ㅅ두^ㅅ면(162)
 어^ㅅ장^ㅅ군^ㅅ이^ㅅ어^ㅅ장^ㅅ을^ㅅ막^ㅅ어(219)
 ㄷ. 어간말 자음이 ‘ㄹ, ㅂ’인 경우

- 허리씩를글너서우히서쫘 ㄱ 갑어 혼쪽에잡고(183)
- 계집하인을불너서밥을달어셔손님씩드리지아니 ㅎ느냐(190)
- 짚지은집에서심엇든무-를답어스더니(192)
- ㄹ ‘ 춤 ㄱ 히씩 거접어 주름 잡으 다고(57)
- 춤 춤 으주시오(54)

(10)은 폐음절로 끝날 때, 어간말 자음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어간말 모음이 ‘아’이면서 폐음절로 끝날 때, ‘-어’가 선택되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어간말 자음이 ‘ㄹ’일 경우에도 어간말 자음이 ‘ㅈ’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가 선택되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전반적으로 어간이 ‘아’일 경우에도 폐음절일 때는 ‘-어’가 선택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⁷⁾

■ 어간말 모음이 ‘오’인 경우

- (11)ㄱ. 어간이 개음절인 경우
 - 나와셔손님씩절 ㅎ고공순히벼여라(104)
 - 여름에갓다가가을에왔습니다(123)
 - 셔방님가져왔스옵니다(269)
- ㄴ. 어간이 후음으로 끝나는 경우
 - 교번쇼에서못는것이조아(29)
 - 바다가를조아 ㅎ는(45)
 - 이벧은도와(50)
 - 이것을도아 ㅎ심니다(52)
 - 드럼타지아니 홀 ㅎ것이도아(53)
 - 얼굴을보면도화 ㅎ는지실 ㅎ는지(138)
 - 차라고별로히도화 ㅎ다고는 홀수업소(196)
- cf. 여러번읽어외와두어야이져브리지아니 ㅎ오(100)

7) ‘-어’가 선택되는 경향에 대해 음운론적인 해석을 하기는 쉽지 않다. 최명옥(1992)에서는, 어촌과 농촌 지역에서 각각 ‘-아’와 ‘-어’가 선택되는 것을 사회언어학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먼첨언문을잘빅화노와야(103)

또심오흔것을넝기지안코빅와서(277)

도강씨의빅올린에마초와셔(273)

(11)은 어간말 모음이 ‘오’인 경우의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11ㄱ)은 개음절 어간을, (11ㄴ)은 후음 말음 어간을 나타낸 것이다. 어간말 모음이 ‘오’인 경우, 개음절로 끝나거나 후음으로 끝날 때는 예외없이 ‘-아’가 결합되었다. (11cf)의 예는 근대 국어 시기에 일어난 ‘오>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보수적인 표기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⁸⁾

(12) 어간이 폐음절인 경우

학싱도를췌앗다(122)

싱선을췌는말가케췌으브리고(193)

먼저인력거를모라셔다ㄸ러셔곳부상자를구호호앗다(240)

(12)는 어간말 모음이 ‘오’이면서 폐음절인 경우의 예이다. 예가 많지 않으나 이 때에도 예외없이 ‘-아’가 결합함을 알 수 있다. 이 완응(1929)에서는 어간말 모음이 ‘오’인 폐음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어’가 결합하였는데, 여기서는 ‘-아’만 나타났다. 이것은 주시경(1906, 1910)과 최현배(1929)의 기술과 일치한다.

■ 어간말 모음이 ‘우’인 경우

8) 토론을 맡아 주신 선생님께서 실제 발음을 표기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현대 중부방언에 ‘싸우다’는 ‘싸왔다’(연천, 포천, 강화, 김포, 고양, 양주, 남양주, 광주, 평택)의 형태로, ‘배우다’는 ‘배와’(강화, 양주, 남양주)의 형태로 ‘한국방언자료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나타난다. 결국 어휘에 따라 통시적 음운 현상이 달리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어간말 모음이 ‘우’인 1음절 어간에는 ‘-어’가 결합한다. (13ㄱ)은 개음절 어간이고, (13ㄴ)은 폐음절 어간인데, 이들은 모두 ‘-어’와 결합함을 알 수 있다.

- (13)ㄱ. 어간이 개음절인 경우
 - 잘간슈하야두어라(35)
 - 벌서어두었습니다(92)
 - 투서에인슈를잘찍어주어라(103)
 - 줍들엇더니우슨쑤었소(143)
- ㄴ. 어간이 폐음절인 경우
 - 바늘은과히글-거(63)
 - 변리가붓터옵니다(68)
 - 킵々 호고우섯다(107)
 - 산에서불어터려오는바름(109)

어간이 2음절 이상일 경우에도 어간말의 환경이나 어간의 음절 수와 관계없이 ‘-어’를 취한다. 그 예는 (14)에서 볼 수 있다.

- (14)ㄱ. 품(品)이낫버짐니다(51)
 - 탁닉에서오작깎버흐실가고스랑힙니다
- ㄴ. 즈귀일홈으로밧구어쓰면(67)
 - 뫼거운옷을바구어입엇네(227)⁹⁾
 - 고기를실혀아니흐시거든조끔잡수어보옵시오(190)¹⁰⁾
 - 콩자반이오니잡수어보시고(190)

9) 원문에 ‘바구어’라 되어 있다. ‘밧구어’로 보아 ‘-어’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잡수어’와 관련하여 ‘우욕을잡수지아니시고잡수스고십퍼도소가업다힙니다(235)’가 참고된다. 유필재(2000: 240)에서는 ‘잡수꼬, 잡수어’로 활용하는 것을, 이전의 ‘ㅂ불규칙 용언’이 ‘ㅅ불규칙 용언’으로 변환된 것으로 보았다.

(14ㄱ)은 ‘낫부-’와 ‘깃부-’ 등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14ㄴ)은 頭子음이 있는 ‘우’ 말음 어간이다. 이 책의 76쪽에 제시된 형용사 항목에는 기본형이 제시되어 있는데 ‘슬푸다, 밋부다 ; 압흐다, 깃브다’ 등이 그것이다. 어간의 기저형이 재구조화된 ‘슬푸다, 밋부다’의 형태가 현실 발음을 더 정확히 관찰하여 기술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순음 아래 ‘으’가 연결된 것이 본래의 형태였으며, 이것이 ‘순음+우’로 바뀌었다는 것은 현실 발음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4ㄱ)의 ‘낫부-’와 ‘깃부-’의 어간 기저형을 각각 ‘낫부-[나뿌-]’와 ‘깃부-[기뿌-]’로 보아, 단일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기뿌-, 나뿌-’의 이전 어간 형태는 ‘기쁘-, 나쁘-’인데, 이들이 어미 ‘-어/어’와 결합시의 활용형 자체가 화석형으로 남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金星奎 1989: 161-162). 이런 불규칙적인 어간을 제외한다면, 어간말 모음이 ‘우’인 어간은 규칙활용을 할 때는 ‘-어’가 결합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ㅂ’ 불규칙 활용의 경우는 위와는 달리 나타나므로 아래에서 따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15) 소위 ㅂ 불규칙 용언 어간

- ㄱ. 가난흐사름을잘도와주어야울흔일이외다(151)
우리는조곰맛볼사지라도민와서혀가짜를ㅂ 흐야(195)
자리가차가와졌스민놀느서밋취여보니(182)
길이사나와졌습니다(122)
대답흐기괴로와서엇지흐면도홀스가(245)
- ㄴ. 대단히더워셔(45)
아바치워지면웨히가속히지는지오(231)
갓이벌서더러웁스니그것은췌여바리고(161)
- ㄷ. 병으로누어잇다가(97), 일년반이느누어계서셔(97)
즈기도두러누엇드니(182)
벌서어두엇습니다(92)

(15ㄱ)은 ‘ㅂ’ 불규칙 용언 어간 중에서 ‘-아’를 취하는 어간의 활용형을 나타낸 것이고, (15ㄴ)은 ‘-어’를 취하는 어간의 활용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 ‘ㅂ’ 불규칙 용언 어간은 자음어미와 결합 할 때는 ‘답다 춡다’(p.75)처럼 ‘Xㅂ-’형이 선택된다. 그러나 모음 어미와 결합시에는 ‘Xㅂ-’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답+ㅂ.아→*더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모음 어미와 결합시 ‘X우-’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15ㄱ)에서 ‘-아’를 취하는 환경은 ‘X우-’의 ‘X’가 양성모음 ‘오 애 아’일 경우에 한해서이다.¹¹⁾ (15ㄴ)에서 ‘-어’를 취하는 환경은 ‘X우-’의 ‘X’가 음성모음 ‘어 우 이’일 경우이다. 따라서 ‘ㅂ’ 불규칙 활용의 경우에는 어간말 음절의 바로 앞음절 모음에 따라 ‘-아어’가 선택적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5ㄴ)은 ‘ㅂ 불규칙 용언’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의 ‘잡수어, 잡수스고’와 관련하여 ‘잡숫다’를 ‘ㅂ 불규칙 용언’으로 본 유필재(2000: 240)의 견해를 따른다면 이들도 문증되지 않는 ‘눈꼬, 어둔꼬’의 활용형이 존재한다면 ‘ㅂ 불규칙 용언’으로 볼 수 있다. 『한불자전』(1880)의 ‘잡수어, 잡순’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

어간말 모음이 ‘이, 에, 어, 위’일 때는 환경에 상관없이 ‘-어’를 취하므로 아래에 묶어 제시하도록 한다.

(16) 어간말 모음이 ‘이’이면서 어간이 후음으로 끝나거나 개음절인 어간

ㄱ. 1음절 어간

고의를지어야하겠서(54)

단추를끼여보시오(53)

11) 어휘에 따라서 ‘X오-’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도오-+ㅂ.아→도와, 도우-+ㅂ.아→도와). 그러나 대체적으로 근대국어 시기에 일어난 비어두음절에서 ‘오>우’ 현상과, 현대 국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모음 어미 결합시에는 ‘X우-’가 선택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ㄴ. 2음절 이상 어간

- 너무느지니꽃쳐주소(53)
- 적삼을즐객켜주엇스면쫓켓다(65)
- 가져오는사름에게주는(69)
- 셔척이여리길싸엿스니(100)
- 그만콧웃겨셔는견딜수업스니(214)
- 조곰잇켜셔는보와습니다마는(22)
- 그손님이이상히녁여셔(97)
- 싸진것을다건져너여버려라(116)
- 눈과비가섯겨오는것을(111)

- (17) 어간말 모음이 ‘이’인 폐음절 어간
 이빋(色)이면못써빋이너무짓터(63)
 쏘는집어도(拾)무용지물이오(69)

- (18) 어간말 모음이 ‘에’인 어간
 그뒤에장갑과당저사보즈를웨립니다(64)
 물스결이세여산곳터셔(185)

- (19) 어간말 모음이 ‘어’인 어간
 ㄱ. 어간이 후음으로 끝나거나 개음절인 어간
 바지족기를너히삼십어원(57)
 무지개가섯소(108)
 손스바닥을펴라훈쥬주마(140)
 구김살이만히젓스니다리미로폐셔다고(160)
 팔을쑤부리지말고바로폐라(140)

ㄴ. 어간이 폐음절인 어간

- 얼마쭙더러(減)주겟느(52)
- 막대에거러셔줄말녀셔(65)
- 막대에너러셔(65)
- 권리가엿셔짐니다(71)
- 훈가지를썩겨셔모즈에쫓고(135)

- (20) 어간말 모음이 ‘위’인 어간¹²⁾

12) 어간말 모음이 ‘위, 외’인 어간은 편의상 단모음으로 분류한다. 이들이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는지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김봉국(2006)을 참조할 수 있다.

무엇을쉬어뵈넛가(63)
서울서쉬엿다(122)
신스가놀~~느~~쉬어이러~~느~~문을연~~느~~(182)
숨~~을~~쉬엿다홉디다(186)
그와뵈귀여(289)
자리가차가와젯스미놀~~느~~서뵈여보니(182)

위 (16-20)은 어간말 모음이 ‘이 에 어 위’인 경우인데 이들은 환경에 관계없이 ‘-어’를 취한다. ‘이’는 중세시기에 중성모음으로 기능하였으나, 이미 음성모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어간말 모음이 ‘애’인 경우는 따로 설명이 필요하므로 아래에 논의하기로 한다.

- (21) 어간말 모음이 ‘애’인 어간
- ㄱ. 품을쪼진도도아(59)
 스러~~느~~-셔(64)
 은형에서차저니셔(66)
 짐은먼저니가오릿가(73)
 모다셔양글로췌스니츰모양뵈고(281)
 오나먼저니보닌다고(73)
 - ㄴ. 품을진여본일이(59)
 조금돈을진여도무방하니(65)
 글데(詩題)를내엿더니순식간에글지어웁습니다(102)

(21)은 어간말 모음이 ‘애’인 경우로서, (21ㄱ)은 완전순행동화를 겪은 것이고 (21ㄴ)은 활음이 첨가된 것이다. (21ㄱ)은 완전순행동화라는 음운과정이 적용되어 ‘-아/어’ 결합을 확인할 수 없으나 (21ㄴ)을 고려하여 ‘-어’가 결합된 것으로 판단한다. (21ㄴ)의 경우 ‘-어’가 선택된 후 활음이 첨가되어 ‘여’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가 결합되었다면 ‘야’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¹³⁾

어간말 모음이 ‘으’인 경우는, 규칙용언으로 분류되는 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어’가 선택된다. 그것의 양상은 (22)와 같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X르.’ 불규칙 활용을 해 온 어간의 경우는, 일반적인 ‘으’ 모음 어간과는 ‘-아어’ 결합이 달리 나타난다.

- (22) 어간말 모음이 ‘으’인 어간
 쇼추심표를써주는사툼과(67)
 그럭저럭느것스니(134)
쓰러너-서(64)
 신을가다들어손을노코(242)
 먹은김치는잘담거맛이티오맛나서(192)
 건축하는법을싸러위싱에도리히를맞치는일이간간잇는고로
 (209)
 먼저인력거를모라셔다르셔곳부샹자를구호호앗다(240)
 돈이원문치러주시오(87)
 cf. 도션으히가모친을싸라서(278)
- (23) 전통적으로 ‘르’ 불규칙으로 불리는 어간
 가. 어간말의 앞음절이 양성모음인 경우
 전징으로하야물사가가모다울느서(58)
 고만물나보앗소(79)
 무엇이던지다말났습니다(110)
 덕국은원통달느셔(279)
 가. 텨장이드러우니조희를발너주시오(205)
 연이식곳치공중으로놀너가지여(266)
 소미스길을세치문줄넛스면엇더하와요(56)

13)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21 가)은 ‘지+아>지아>지애>지’의 과정으로, (21 나)은 ‘지+아>지아>지여’의 과정으로도 설명될 수 있음을 지적받았다. (21)은 ‘야>(yay)>(ye)>e’의 과정을 생각할 수 있고, (21 나)은 ‘야>y3’의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공통점은 완전순행동화 이전에 ‘y’ 하향 이중모음의 유동성으로 인해, ‘-ya’로 먼저 변화된다는 것이다. 활용형이 하나의 단위로 통시적 변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ㄴ. 어간말의 앞음절이 음성모음인 어간

- 하인에게일너두어라(26)
- 쇼방부가서틀너서그런것이아니오(30)
- 인력거를곶불너다고(73)
- 잠스간들너셔(135)
- 가슴을늘이지말고고히문질너라(140)

(23)은 어간말 모음이 ‘으’이면서 전통적으로 ‘르’ 불규칙 활용으로 다루어져 온 어간의 활용형에 대한 예이다. (23ㄱ, ㄴ)은 어간말의 앞 음절이 양성모음인 경우이고, (23ㄴ)은 어간말의 앞 음절이 음성모음인 경우이다. (23ㄱ, ㄴ)에서 보듯이 어간말의 앞 음절이 양성모음인 경우에는 ‘-아/어’가 모두 결합하고 있는데, 이는 ‘-아’가 결합하는 형태에서 ‘-어’가 결합하는 형태로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어간말의 앞 음절이 음성모음인 경우에는 (23ㄴ)에서 보듯이 ‘-어’만 결합한다. 전통적으로 ‘르’ 불규칙 용언들은 ‘X르->X르르’로 재구조화된 형태가 이 시기에 발견된다. 이들은 ‘X’의 모음이 양성모음일 때에는 ‘-아/어’가 각각 결합하는 형태가 나타나나, ‘-어’가 결합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X’의 모음이 음성모음일 때에는 ‘-어’가 결합된다.

불규칙 활용어간은 활용형 자체가 통시적으로 변화하여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활용어간이 어미 ‘-아/어’와 결합할 때 규칙활용보다 그 변화의 양상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과 연관된다.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하던 것이 그 형식이 고정되게 되면,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공시적 음운현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제 단일 형태소 내부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불규칙 활용 어간의 ‘-아/어’ 교체도 공시적인 현상과는 거리가 있다. 이들은 이전 시기의 ‘-아/어’ 교체를 반영하는 것뿐이다. 규칙 활용 어간이 ‘-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면 불규칙 활용 어간은 그러한 경

향을 뒤늦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불규칙 활용의 경우, 활용형 자체가 변화를 겪기 때문에 활용형의 내부는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다.

(24) 어간말 모음이 ‘외’인 어간

ㄱ. 괴일이되야셔(175)

고약을흔봉사다가부챗터니파종이되야고름이낫소(219)

엇지되얏는지(234)

스스로치의가되야버렸소이다(237)

큰쇼문이되야버렸다(237)

되얏스면엇더흐냐(257)

ㄴ. 나의작란을남이알게드면아니되지마는사순아가문은배도도와(265)

씩줄되였다(62)

선싱긔치되야흐다고흐얏다네(294)

어간말 모음이 ‘외’인 경우는 ‘되-’와 ‘뵈-’만 보였는데, ‘되-’의 경우는 ‘야’가 결합하는 것이 ‘여’가 결합하는 것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 책에서 ‘되여(x)’ 형태는 (24ㄴ)에 제시된 두 개의 예문이 전부이다. 이완응(1929: 88-90)에는 ‘하-’에만 ‘-야’가 결합한다고 했는데, ‘되-’의 경우도 ‘-야’가 결합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에도 ‘-여’가 결합하는 것이 아래 (26)에 보듯이 더러 나타나고 있다.

이완응(1929: 88-90)의 ‘하-’의 설명에서는 ‘야’가 결합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한 ‘精選 日語通編’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하-’에 ‘야’가 결합한 ‘하(ㅎ)야(X)’ 형태가 대부분이다.

(25) 그셔적(칙)은합흐야(16)

커지지아니흐야셔다힐흐얏다(29)

경부선과정의선과들이합씨도착흐야미오혼잡흐오(88)

이력저력설치하얏소(88)
비와바람으로인하야(88)
기차가충돌하얏습니다(88)
신스들이날과상하얏습니다(88)
속히하떡게하야다고(194)
혹음금하기도하야단속하야왔다(284)
일반하덕으로아니하야서는못된다말하야두엇다(285)
아지못하는자가심방하야가도하면하야주시겟는가(297)
귀하사람에게하대하여서는(302)
웃하사람에게하대하야서(303)

그러나 가끔씩 ‘하(하)여(X)’ 형태도 발견되는데, 아래에 제시된 예들이 전부이다. 그런데, ‘하(하)여(X)’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대체로 형태론적인 제약이 있는 듯하다. 아래는 대체적인 형태론적 제약을 밝혔고,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인 것이다.

- (26) ㄱ. 하+-야라/여라 → ‘-여라’ 선택
이리로인도하여라(34)
본분을다하여라(41)
말은적게하여라(139)
술이드러우니목욕이나하여라(142)
손님이면사랑으로인도하여라(206)
바둑판과바둑을이리로바로노케하여라(269)
- ㄴ. 하+-야야/여야 → ‘-여’ 선택
하사진(仕進)하여야하오(42)
친구를심방하여야하깃소(124)
하싱각하여야되니(127)
속히준비하여야하겟소(164)
- ㄷ. 하+-야#/여# → ‘-여’ 선택
좀날갯스니이번에시로민들니드리도하무방하여(58)
꼭못지아니하여(62)
단추군영을하뿌려야하여(63)

현금모양으로여슈를혀.(67)

나의작란을남이알게드면아니되지^ㅁ는사순아아가문은뵈도도
와/작란이라니무엇을혀?/좌우간와보와그동안^ㅁ지는말아니
혀/응-설아즈미잇셔?/응-그리그러면나도테리고가주어(265)
그뒤를눈여겨보고엄마라고^ㅁ지안는^ㅇ히는더욱용혀.(279)

(26)은 ‘혀’에 ‘-여’가 결합되는 예들을 모두 모은 것이다. (26ㄱ)은 명령형 어미가 결합한 경우인데 ‘-여라’가 결합된 것을 보인 것이고, (26ㄴ)은 ‘의무’의 뜻을 지닌 연결 어미 ‘-여야’가 결합한 것을 보인 것이다. (26ㄷ)은 종결어미 ‘-아/어#’형이 결합된 것으로 ‘-야/여’ 중에서 ‘-여’가 결합된 것이다.

(26ㄱ)은 명령형 어미가 결합될 때 *‘혀아라’ 대신 ‘혀여라’가 나타나 보인 것인데, 명령형 어미가 결합할 때는 ‘-아라’ 혹은 ‘-아라’는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26ㄴ)에서도 모두 ‘-여야’만 결합되었다. 즉, *‘혀(혀)야야’ 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혀’에는 ‘-아/어’가 아닌 ‘-야/여’가 결합되는데, ‘-야/여’ 뒤에 다시 ‘야’가 올 때, ‘혀야야’는 동일한 음절이 반복되므로 ‘-야/여’의 선택에서 ‘-여’가 결합한 ‘혀여야’가 더 자연스러운 발화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6ㄷ)은 ‘혀’에 결합되는 ‘-야/여’가 해라체의 종결형어미일 때, ‘-여’가 결합됨을 알 수 있다. 종결형어미는 평서형과 의문형이 발견되는데, 문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두 경우 모두 ‘-여’가 선택되고 있다. 종결형에서 ‘-여’가 선택되는 것도 특이하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혀(혀)’와 결합시 연결형 ‘-아/어’, 선어말어미 ‘-았/었’에서는 ‘-야’가, 종결형 ‘-아/어’에서는 ‘-여’가 달리 선택되어 나타나는 흥미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혀여’ 형이 쓰이지만 환경을 형태론적으로 범주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 (27) ㄱ. 선금^ㅅ지^ㅅ밧^ㅅ즈와^ㅅ황송^ㅅㅎ여이다(55), 황송^ㅅㅎ여이다(55)
 무스^ㅅㅎ여이다(131)
 ㄴ. 국^ㅅ급^ㅅㅎ여^ㅅㅎ오(153)
 그것은^ㅅ쎄^ㅅ여^ㅅ바^ㅅ리^ㅅ고^ㅅ거^ㅅ문^ㅅ우^ㅅ단^ㅅ으로^ㅅ키^ㅅ비^ㅅㅎ여^ㅅ주^ㅅ시오(161)
 담^ㅅ배^ㅅ합^ㅅ들^ㅅ을^ㅅ잘^ㅅ정^ㅅ돈^ㅅㅎ여^ㅅ노^ㅅ아^ㅅ라(207)
 줄^ㅅ료^ㅅ량^ㅅㅎ야^ㅅㅎ야^ㅅ다^ㅅ고(58)
 ㄷ. 즈^ㅅ네^ㅅ나^ㅅ라^ㅅ에^ㅅ서^ㅅ는^ㅅ엇^ㅅ더^ㅅㅎ여^ㅅ육^ㅅ식^ㅅ을^ㅅㅎ는^ㅅ가(234)
 나^ㅅ는^ㅅ요^ㅅ식^ㅅ이^ㅅ상^ㅅㅎ다^ㅅ고^ㅅ싱^ㅅ각^ㅅㅎ여^ㅅ그^ㅅ무^ㅅ엇^ㅅ격^ㅅ정^ㅅ스^ㅅ러^ㅅ운^ㅅ일^ㅅ이^ㅅ느^ㅅ싱^ㅅ것^ㅅ느^ㅅ
 나(243)
 그^ㅅ것^ㅅ을^ㅅ쓰^ㅅ게^ㅅ절^ㅅ가^ㅅㅎ여^ㅅ서^ㅅ그^ㅅ것^ㅅ으로^ㅅ대^ㅅ신^ㅅㅎ는^ㅅ편^ㅅ이^ㅅ얼^ㅅ므^ㅅ나^ㅅ도^ㅅ홀^ㅅ스^ㅅ지^ㅅ
 (245)
 소^ㅅ미^ㅅ가^ㅅ길^ㅅ기^ㅅ가^ㅅ과^ㅅㅎ여^ㅅ직^ㅅ봉^ㅅ이^ㅅ급^ㅅ지^ㅅ못^ㅅㅎ다^ㅅ므^ㅅ는(61)
 ㄹ. 부^ㅅ딤(살^ㅅ찌^ㅅ다)ㅎ여^ㅅ지^ㅅ다^ㅅ니(59)
 ㄷ. 세^ㅅ마^ㅅ몬^ㅅ잇^ㅅ스^ㅅ면^ㅅ떡^ㅅㅎ여^ㅅ오(51)

(27)은 (26)의 예를 제외하고 ‘ㅎ여’가 쓰인 예로서, (27ㄱ)은 ‘-이’ 앞에서 ‘ㅎ여’가 쓰인 것이며, (27ㄴ)은 ‘ㅎ+야/여++V’ 구문에서 ‘ㅎ여’가 쓰인 것이며, (27ㄷ)은 (25)와 비교해 볼 때 수의적 교체형으로 보인다. (27ㄴ)도 (27ㄷ)과 마찬가지로 (25)와 비교해 보면, 이런 구문을 ‘ㅎ여’가 나타나는 환경으로 범주화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7ㄹ)은 ‘-어지다’ 구문에 ‘ㅎ여’가 쓰인 예이며, (27ㄷ)은 하오체의 종결형 어미 앞에서 ‘ㅎ여’가 쓰인 예이다. (27)의 예들은 각각의 환경에 해당하는 예문이 적고, 동일환경에서 ‘ㅎ야/ㅎ여’가 수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정한 환경을 명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목할 표기인 ‘히(X)’가 아래와 같이 한번 나타난다.

- (28) 이^ㅅ쳐^ㅅ림^ㅅ친^ㅅ절^ㅅ히^ㅅ말^ㅅㅎ야^ㅅ술^ㅅ을^ㅅ멕^ㅅ여^ㅅ서^ㅅ주^ㅅ라^ㅅ고^ㅅ싱^ㅅ각^ㅅ히^ㅅ는^ㅅ대(259)

필자의 판단으로는 비록 ‘히(X)’가 한번 나타나지만, ‘하(ㅎ)야

(X), 하(ㅎ)여(X)'보다 이것이 좀더 현실 발음을 반영한 표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¹⁴⁾ 그 이유는 통시적으로 'ㅎ-'가 어미 '-아/어'와 결합시 하향 이중모음을 지닌 '히-'로 재구조화되었다가 다시 單모음화를 거쳐 이미 '히-'로 되었기 때문이다(최명옥 1998: 122). 이미 이 시기에 '히(해)X'가 현실 발음으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해(히)(X)'가 이 당시의 자연스러운 발화였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26ㄷ)의 종결어미가 결합된 '하(ㅎ)여#'는 당시 구어로는 '해(히)#'였을 것으로 본다. (26ㄱ, ㄴ)에서 각각 '하(ㅎ)여라, 하(ㅎ)여야'의 경우는 '해라, 해야'보다는 자연스러운 당시 발화가 아니지만, 요즘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발화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5)의 '하(ㅎ)야' 형은 그 당시 현실 발음이라기보다는 이전 시기의 활용형을 반영한 표기인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상으로 어미 '-아/어(X)'의 교체에 대해 음운론적 환경과 형태론적 환경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음운론적 환경이란 주로 어간말 모음, 음절수, 어간말 자음의 유무 등이며 형태론적 환경이란, 특정 어미의 결합, 특정 어휘, 그리고 불규칙 용언의 활용 등이 해당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간말음절 모음이 '아'일 경우에 '-아/어'가 비슷한 비율로 선택

14) 심사위원으로부터 'ㅎ- + -아 > ㅎ야 > 히야 > 히애 > 히(해)'로 보는 학설도 있음을 지적받았다. 그런데 'ㅎ야'가 나오려면 그 이전에 어간은 'ㅎ-'가 아닌 '히-'로 되어야 한다. 'ㅎ-'라고 가정하면 '-아' 결합시 'y' 삽입을 설명할 수 없다(가(去) + -아도 → *가야도, 나(出) + -아도 → *나야도).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면, 위의 설명도 'ㅈ- + -아 → ㅈ야 > ㅈ야'의 경우와 같이 타당성이 있다.

되나, ‘-어’가 선택되는 경향이 우세한 듯하며, 최현배(1929: 82)의 논의대로 어간말 모음 ‘아’일 때, 어간말 자음이 ‘ㅈ’이면 ‘-어’가 선택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물론 ‘-아’가 선택되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간말 자음이 ‘ㄹ’일 경우도 ‘ㅈ’인 경우와 비슷하게 ‘-어’가 많이 선택되었다. 폐음절 어간일 경우는 ‘-어’가 선택되는 경향이 강하였다(막어, 츠저, 달어)

어간말음절 모음이 ‘오’일 경우에는 예외 없이 ‘-아’가 결합하였으며 어간말 모음이 ‘우’인 경우는 ‘-어’를 취하였다.

‘ㅂ’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의 경우, ‘X우-’의 ‘X’가 양성모음 ‘오 애 아’일 경우에는 ‘-아’가 선택되고, ‘X우-’의 ‘X’가 음성모음 일 때에는 ‘-어’가 선택된다(ex. 사나와, 밭와 ; 더워, 더러워). 어간말 모음이 ‘이, 에, 애, 어, 위, 으’는 ‘-어’를 취하였다.

‘ㄹ’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의 경우 ‘Xㄹㄹ-’에서 ‘X’의 모음이 양성모음일 때에는 ‘-아/어’가 각각 결합하는 형태가 나타나지만 ‘-어’가 결합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X’의 모음이 음성모음일 때에는 ‘-어’가 결합하는 형태만 나타난다(ex. 울느서, 발너 ; 일너, 서틀너서)

불규칙 활용형들에서 어미가 전반적으로 ‘-어’가 결합되는 형태로 바뀌는 흐름과 달리 나타나는 것은 그 활용형들이 통시적 변화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공시적인 결합과 분석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ㅎ-(爲)’의 경우 이완웅(1929)의 설명대로 ‘-야’가 결합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는데 ‘-어’가 결합되어 ‘-혀’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 형태론적으로 범주화할 수가 있었다. ‘-혀’가 나타나는 경우는 ① 명령형 어미 ‘-여라’ 형이 결합될 경우, ② ‘의무’의 뜻을 지닌 연결 어미 ‘-여야’ 형이 결합될 경우, ③ 종결어미 ‘-여#’가 결합될 경우 등이다. 한편, ‘되-’에는 이완웅(1929)의 기술과는 달리 ‘-어’보다는 ‘-야’가 결합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고에

서는 그 당시 실제 자연 발화에서는 ‘해(히)(X)’가 더 자연스럽게 쓰였을 것으로 보았다.

본고는 20세기 초 회화서 중 하나만을 대상으로 ‘-아/어’의 결합 양상을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당시의 음운현상을 폭넓게 알려면, 또 다른 회화서와의 비교 분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 책의 다른 음운현상들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Key words): 교체(alternation), 일어통편(Ireotongpyeon), -아/어 교체 (-a/ǎ alternation), 음운현상(phonological phenomena), 회화서(conversation book)

참고문헌

- 郭忠求(1994), 「系合 內에서의 單一化에 의한 語幹 再構造化」, 『南川 朴甲洙先生 華甲紀念論文集』, 太學社, pp.549-586.
- 김두봉(1916), 『조선말본』, 새글집.[역대한국문법대계 1]-22]
- 김두봉(1922), 『조선말본』, 상해, 새글집.[역대한국문법대계 1]-23]
- 金敏洙 編(1992), 『周時經全書 1-6』, 탑출판사.
- 김봉국(2001), 「江陵三陟地域語 ‘-어/아’系 語尾의 交替와 音韻現象」, 『語文研究』(여름호) 29-1, 韓國語文教育研究會, pp.71-92.
- 김봉국(2006), 「개화기 이후 국어의 ‘위, 외’ 음가와 그 변화」, 『李秉根 先生退任紀念 國語學論叢』, 태학사, pp.155-191.
- 金星奎(1989), 「活用に 있어서의 化石形」, 『주시경학보』 3, pp.159-165.
- 盧秀子(1969), 「白堂玄采研究」, 『梨大史苑』 8, 이화여자대학교사학회, pp.69-100.
- 송철의(2006), 「1910-1920년대 한국어 연구와 한국어의 실상」, 『李秉根 先生退任紀念 國語學論叢』, 태학사, pp.1515-1542.

- 申昇容(2000), 『음운 변화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통시적 연구』, 西江大 박사학위논문.
- 오종갑(1987), 「국어의 원순모음화 현상」, 『嶺南語文學』 14, pp.69-85.
- 오종갑(1997), 「어간 ‘-ㅈ-’의 방언분화와 표준어 문제」, 『人文研究』 18-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32.
- 유필재(2000), 「‘잡숫다’류 동사의 사전 기술」, 『서울말연구』 1, pp.231-241.
- 李秉根(1970), 「19世紀 後期 國語의 母音體系」, 『學術院論文集』 9, pp.375-390.
- 李秉根(1976), 「19세기 國語의 母音體系와 母音調和」, 『국어국문학』 72-73, 국어국문학회, pp.1-14.[李秉根(1979)에 재수록]
- 李秉根(2003), 「近代國語學의 形成에 관련된 國語觀-大韓帝國 時期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2,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pp.1-29.
- 李完應(1929), 『中等教科 朝鮮語文典』, 朝鮮語研究會.[역대한국문법대계 Ⅰ-40]
- 이진호(2002ㄱ), 「화석화된 활용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0, 국어국문학회, pp.27-57.
- 이진호(2002ㄴ), 『음운 교체 양상의 변화와 공시론적 기술』, 서울大 박사학위논문.
- 정승철(1999), 「개화기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 개화기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pp.7-59.
- 周時經(1906), 『대한국어문법』.[역대한국문법대계 Ⅰ-07]
- 周時經(1910), 『國語文法』, 博文書館.[역대한국문법대계 Ⅰ-11]
- 崔明玉(1992ㄱ), 「19世紀 後期國語의 研究 - <母音音韻論>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3,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55-90.[崔明玉(1998)에 ‘19世紀 後期 國語의 音韻論’이라는 제목으로 재수록]
- 崔明玉(1992ㄴ), 「慶尙北道의 方言地理學 : 副詞形語尾 ‘-아X’의 母音調和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73, pp.139-163.
- 최명옥(1998), 『國語音韻論과 資料』, 태학사.
- 최현배(1929), 『우리말본 첫재매』, 연희전문학교출판부. [역대한국문법

대계 [1]-4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1995), 『韓國方言資料集』 I (京畿道編).

玄公廉(1911), 『精選 日語通編』. [역대한국문법대계 [2]-51]

국립국어연구원(2003),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 21세기 세종계획 한
민족 언어 정보화.

The Phonological Study on Ending ‘-a/ə(x)’ alternation in
“Hyun, Gongryeom(1911) ‘Jeongseon Ireotongpyeon”

Kim, Se-Hwan

This Paper is the phonological study on Ending ‘-a/ə(x)’ alternation in “Hyun, Gongryeom(1911) ‘Jeongseon Ireotongpyeon””. I begin with argument that this book reflects jungbu dialects on the basis of Unrounding and ‘ə>ɪ’ rising in Chapter 2.

In Chapter 3, there are description of Ending ‘-a/ə(x)’ alternation, which is divided to Enviroment of stem vowel. The conclusion follows as:

If final vowel of stem is ‘a’ with final consonant ‘l’ or ‘c’, ‘-ə’ is selected in general. If final vowel of stem is ‘o’, ‘-a’ is selected absolutely in this book. In terms of the ‘p’-irregular verb, if ‘X’ of ‘Xu-’ is ‘o, ɛ, a’, Ending ‘-a’ is selected, if ‘X’ of ‘Xu-’ is the vowel except ‘o, ɛ, a’, Ending ‘-ə’ is selected absolutely. So-called ‘li’-irregular verb is restructured ‘lli’-regular verb, in which ‘-ə’ is selected more than ‘-a’ if ‘X’ of ‘Xlli-’ is ‘o, ɛ, a’, and ‘-ə’ is completely selected if ‘X’ of ‘Xlli-’ is the vowel except ‘o, ɛ, a’. In terms of ‘ha-(do)’, ‘-ya’ is selected mostly, but enviroments that ‘-yə’ is selected are categorized in morphology.

김세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주소: 서울 특별시 강북구 수유2동 318-11번지 301호

전화번호: 011-9966-7317

전자우편: coreahan2@empas.com

이 논문은	2006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11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12월	30일	간행함